



## 삼국유사설화에 나타난 공감 양상과 다문화교육적 의미

The Empathy Aspects and Multicultural Educational Meanings of Narrative in Samgukyusa

---

**저자  
(Authors)** 최은숙  
Choi, Eunsook

**출처  
(Source)** [어문학 128](#), 2015.6, 189-213(25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28](#), 2015.6, 189-213(2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83759>

**APA Style** 최은숙 (2015). 삼국유사설화에 나타난 공감 양상과 다문화교육적 의미. 어문학, 128, 189-21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4 10:41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 양상과 다문화교육적 의미\*

최 은 숙\*\*

### 〈차례〉

- |                                  |                             |
|----------------------------------|-----------------------------|
| 1. 서론                            | 3.1. 공감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 강조 |
| 2.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       | 3.2. 반성적 자기이해와 상호공존의 강조     |
| 2.1 텍스트 선정                       | 4. 결론                       |
| 2.2. 공감의 다층적 양상                  |                             |
| 3. 공감을 통해 본 『삼국유사』 설화의 다문화교육적 의미 |                             |

### 1. 서론

본고는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다문화교육적 측면에서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문학작품에서 다문화적 요소를 찾고 그것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및 다문화교육을 시도하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고전문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 또한 텍스트가 지닌 다문화적 측면을 특히 주목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sup>1)</sup> 이러한 시각은 최근 들어 활발히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조교수.

1) 대표적 성과로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임재해, 『『골계전』 설화의 다문화읽기와 다문화사회 만들기』, 『구비문학연구』 2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pp. 24~74.

최혜진, 「다문화시대의 설화교육 시론」, 『문학교육학』 26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이루어진 설화 연구의 한 경향에서도 확인되는데, 바로 ‘이물교혼담’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이다.

‘이물교혼담’이란 인간과 이물과의 관계를 다룬 이야기를 말한다. 이들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한국 다문화가정의 은유로 활용될 수 있으면서 주체와 타자의 문제,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스토리의 전개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2)</sup>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 설화에서 서로 다른 존재 간의 어울림의 가능성을 찾고 다문화사회에서 강조되는 상호 인정과 연대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그런데 ‘이물교혼’이라는 제재가 지닌 명확성은 오히려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보다 섬세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짚어내는 데 한계를 지닐 수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가 모두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한 인정과 상호 소통’이라는 일반적 주장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은 주로 타인이해에 그쳐있다. 그리고 여전히 타인은 주체의 인정을 전제로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호인정과 소통을 위해 진정 필요한 다문화적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가 텍스트에 어떻게 드러나 있으며 그것이 텍스트의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한 고찰이 이어져야 한다. 이에 분고는 『삼국유사』 설화가 지닌 ‘공감’의 양상을 주목하고자 한다.

『삼국유사』 역시 이물교혼 혹은 이물교유 모티프를 지닌 텍스트가 많이 있을 뿐 아니라<sup>3)</sup>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관계유형을 엿볼 수 있는 텍스트도 존재한다.<sup>4)</sup> 이러한 텍스트의 존재양상은 『삼국유사』

pp. 255~277.

- 2) ‘이물교혼 모티프’는 문학의 환상성과 상징성 등을 훌륭히 실현하고 있는 텍스트로서 설화의 특성을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중심에 있다. 최근 다문화교육 텍스트로서 주목받고 있는 많은 설화 텍스트들이 이물교혼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착안한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명현, 「다문화시대 인물 탄생형 이물교혼담의 가치와 동화 스토리텔링의 방향」, 『어문논집』 55집, 중앙어문학회, 2009, pp. 173~194.  
양민정, 「다문화교육 관점의 여성설화의 서사적 전통 연구」, 『외국문학연구』 57집,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문학연구소, 2015. 2, pp. 247~271.
- 3) 이와 관련한 텍스트의 구체적 예시와 상호소통의 양상에 대한 연구로 이강욱의 「신라 설화에서의 존재 간 소통 양상과 의미」(『어문논총』 5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12, pp. 227~256)를 들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존재 및 문화 간의 교류 및 관계에 대한 관심을 살필 수 있는 적절한 대상임을 말해준다.<sup>5)</sup>

‘공감’은 상대에 대한 인정과 소통을 넘어서서 그를 통한 자기정체성 확립에까지 나아가는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자 덕목이다.<sup>6)</sup> 그래서 공감의 요소를 주목하게 되면 다문화교육은 상대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상대를 통하여 나에 대한 이해에 이르게 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다문화교육의 관점은 타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삼국유사』 설화를 대상으로 ‘공감’의 양상을 살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체의 타자에 대한 이해의 양상뿐 아니라 타자를 통한 주체의 정체성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현재 다문화교육이 처한 문제점과 바림직한 방향성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삼국유사』의 다문화적 의미와 교육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sup>7)</sup>, 다문화교육 텍스트에서 공감의 요소가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가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박진태, 「『삼국유사』의 설화를 통해 본 <토착-외래>의 관계 유형」, 『국어교육』 34집, 한국어교육학회, 2011. 2, pp. 243~265을 들 수 있다.

5) 본고는 『삼국유사』에서 공감의 양상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들 텍스트에만 주목하지는 않을 것이다.

6) ‘공감’에 대한 연구는 ‘공감이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공감’의 의미는 상대의 고통에 대한 감정적 인지적 공감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정체성 문제에 대한 고민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로 한다.

김미덕, 「공감, 정체성, 탈동일시」, 『사회와철학』 26집, 사회와철학연구회논문집, 2013. 10, pp. 317~354.

민은경, 「타인의 고통과 공감의 원리」, 『철학사상』 27권,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08. 2, pp. 67~90.

김태훈, 「공감(empathy)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47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5. 2, pp. 1~28.

정재림, 「공감의 상상력과 문학교육」, 『어문논집』 69집, 민족어문학회, 2013, pp. 85~111.

7) 이와 관련하여 표정옥의 「신화적 상상력을 활용한 경계를 넘는 독서토론과 융합적 글 쓰기 연구-〈삼국유사 : 기이편〉에 기술된 다문화 상상력을 중심으로-」(『시학과 언어학』 21호, 시학과 언어학회, 2011. 8, pp. 249~272)는 중요한 참고가 된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삼국유사』 설화를 다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및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제재로 삼고 있다. 『삼국유사』 설화 텍스트에서 공감과 이를 통한 다문화교육 의미를 찾으려는 본고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 2.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

### 2.1. 텍스트 선정

『삼국유사』에서 공감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먼저 대상 설화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존재,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신분 간의 교류나 교감을 다룬 설화를 먼저 살피기로 한다. 공감은 “상호 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이타적 행동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삼국유사』에서 공감의 요소를 찾기 위해서 서로 다른 존재, 서로 다른 인간 간의 교류를 다룬 설화를 먼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구분             | 대표 설화               | 인물  | 교류 및 교감의 양상                       |
|----------------|---------------------|---|-----------------------------------|
| 서로 다른 신분 간의 교류 | <二惠同塵(지귀설화)>        | 선덕여왕-지귀   | 선덕여왕을 사모한 지귀와 금팔찌를 준 선덕여왕         |
|                | <水路夫人>              | 수로-노인   | 칠쭉을 탐한 수로와 꽃을 바친 노인               |
|                | <孝昭王代竹旨郎>           | 죽지랑-득오  | 부역 간 득오를 찾아간 죽지랑과 죽지랑을 추모한 득오     |
| 사람과 이물간의 교류    | <古朝鮮王儉朝鮮>           | 환웅-옹녀   | 사람이 되고 싶은 옹녀와 옹녀와 혼인한 환웅          |
|                | <桃花女와 鼻刑郎>          | 도화녀-진지왕   | 도화녀를 사랑한 진지왕과 귀신이 된 진지왕을 받아들인 도화녀 |
|                | <南白月二聖, 努矜夫 得과但怛朴朴> | 노힐부득-여인<br>달달박박-여인                                  | 여인을 도와 성불한 노힐부득과 그렇지 못한 달달박박      |
|                | <惠通降龍>              | 혜통-수달   | 어미수달의 모성애에 감동하여 죽이 된 혜통           |
|                | <金現感虎>              | 김현-호(虎) 낭자  | 김현을 사랑한 호랑자의 헌신과 의리               |
| <善律還生>         | 冥司-선율-낭자            | 선율의 환생을 도와 준 冥司 낭자의 부탁을 들어 준 선율<br><반야경> 완성을 도운 사람들 |                                   |
| 문화와 문화 간의 교류   | <新羅始祖 赫居世王>         | 혁거세-알영  | 천신신앙과 용신신앙의 결합                    |
|                | <駕洛國記>              | 김수로-허황옥   | 이민족 간의 결합                         |
|                | <處容郎과 望海寺>          | 처용랑-임금<br>처용랑-역신                                    | 용왕의 아들 처용을 등용한 임금<br>역신을 포용한 처용   |

표의 내용을 참고하면 『삼국유사』에서 서로 다른 존재 간의 교류와 교감을 다룬 설화 중 사람과 이물과의 교류를 다룬 설화가 가장 많다. 사람과 사람보다는 사람과 이물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교류와 교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이들의 교류를 다룬 설화가 많다는 것은 설화 향유자들의 세상에 대한 열린 상상력과 강한 소통의 욕구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sup>8)</sup> 그렇다면 이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능력을 설화 향유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공감’을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위의 설화들을 다시 세밀히 살펴볼 것이다.

한편 양적으로는 적지만 문화와 문화 간의 교류를 다룬 설화가 존재함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가락국기> 설화에서 허황옥을 맞이하는 장면과 자손의 성씨를 김씨와 허씨로 나누어 가지게 한 것 등은 상호 인정의 토대 위에 이루어진 문화 간 교류의 대표적인 예이다.<sup>9)</sup>

한편 <처용랑 망해사> 설화에서 처용이 자신의 아내를 범한 역신을 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처용의 무능이나 부적응이 원인이었다면 역신은 처용에게 굴복할 필요가 있었을까? <처용랑 망해사> 설화가 약탈의 설화가 아니기에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원인과 일연의 의도를 찾아야 한다. 왕이 처용을 대하는 태도, 처용이 역신을 대하는 태도, 역신이 처용을 대하는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태도에는 주체와 타자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바로 공감의 요소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한편 위의 텍스트 선정과 관련해서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다룬 ‘서로 다른 존재 및 문화와의 만남을 다룬 텍스트’ 전체로 확장하여 논의하지는 않기로 한다.<sup>10)</sup> 여기서는 이들의 만남이 상호 교

8) 이강욱, 앞의 논문(2012), pp. 247~252 참조.

9) 박진태는 이를 문화 간 ‘융합’으로 설명했고(앞의 논문, 2011, pp. 262~263), 표정옥은 이를 다문화적 요소를 가진 텍스트로 확정하고, ‘호주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에 활용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앞의 논문, p. 263).

10) 이강욱(2012), 박진태(2011)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류 및 교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서동요> 설화의 서동과 선화, <고구려> 설화의 해모수와 유화부인의 결합은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한 교감과 교류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sup>11)</sup>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이물, 문화와 문화의 교류 및 교감을 다룬 『삼국유사』 설화 가운데 교류와 교감의 양상이 스토리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화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sup>12)</sup> 이 텍스트들이 이미 『삼국유사』 설화로서 폭넓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기에 교육텍스트로 적당하다는 판단과 더불어 이들이 ‘공감’이라는 코드로 어떻게 새롭게 읽힐 수 있는가를 기존의 해석과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삼국유사』 설화 중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공감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공감의 전제가 되는 서로 다른 존재와의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텍스트를 정리하였다. 『삼국유사』 설화에는 서로 다른 존재와의 교류를 다룬 텍스트가 많은데, 이들 가운데 본고는 상호 소통을 전제로 한 설화를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이물’, ‘문화와 문화’ 간의 교류로 대분하여, 각각의 대표적인 텍스트를 정리하였다. 『삼국유사』 설화 전체를 살펴 대상을 선정하였지만 대체로 인지도가 높으면서, 대표성을 띠는 작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정한다. 이는 교육 텍스트로서의 가능성과 공감코드로 텍스트가 어떻게 새롭게 읽힐 수 있는가를 살피기 위한 것이어서 적절하다.

## 2.2. 공감의 다층적 양상

공감에 대한 이론은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공감’을 주목하는 것은 ‘감정이론’이 문학텍스트를 보는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한 상황과

11) 이 부분은 다문화교육 텍스트로서 이들 설화를 주목한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12)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본고의 목적은 『삼국유사』를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인 ‘공감’의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의 대상은 이주민과 선주민을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민 동화의 차원보다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의 문제와 이러한 공유의 가치관을 어떤 텍스트를 통해 확인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연관되기도 하고, 최근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 및 다문화교육과 ‘공감’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공감에 대해서는 그 용어, 구성요소,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주목하면, 공감은 크게 정서적, 인지적 요소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을 이분하여 논의하기 힘들지만 정서적 요소를 타인과의 감정적 연합이라 본다면, 인지적 요소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감의 요소를 주목하되 공감이 타자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타자를 통한 자신에 대한 점점으로 나가야한다는 연구<sup>13)</sup>에 동의하면서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을 감정적 전이로서의 공감, 인지적 실천으로서의 공감 그리고 탈동일시 과정으로서 공감으로 나누어 확인해 본다.

### 2.2.1. 감정적 전이로서의 공감

공감의 사전적 의미를 주목할 때 공감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정서적 상태와의 일치’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감은 ‘타자의 처지에 대한 관심 또는 타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정서적 반응의 체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감을 ‘정서적 일치와 동정적 반응’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 이는 모두 공감의 정서적 측면을 주요 요소로 보는 입장이다.<sup>14)</sup> 공감은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눔’이라고 한 셸리의 공감개념도 이와 다르지 않다.<sup>15)</sup> 『삼국유사』 설화 중 이러한 정서적 공감의 양상을 나타낸 대표적인 설화가 바로 <선율환생> 설화이다.

망덕사(望德寺) 중 선율(善律)은 시주받은 돈으로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이루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저승을 관장하는 명사(冥司)는 그가 가장 중요한 소원을 이루지 못함을 듣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 준다. 그때 어떤 여자가 울며 선율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며 대신 이루어줄 것을 소망한다. 선율

13) 김미덕, 「앞의 논문」, 2013. 10, pp. 317~354.

14) 김태훈, 「앞의 논문」, 2015. 3, p. 11.

15) 박병준, 「공감과 철학상담-막스 셸리의 ‘공감’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논집』 36집, 서강대철학연구소, 2014. 2, p. 17 참조.

은 여자의 소원대로 그녀의 명복을 빌어주었고, 여자는 고뇌를 벗어나게 된다.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하여 <반야경(般若經)>을 서로 도와서 완성시킨다.<sup>16)</sup>

이 설화에서 죽은 선율을 다시 세상에 환생하게 한 것은 명사(冥司)의 선율에 대한 공감이다. 비록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엄정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선율의 처지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공감의 대상자인 선율이 다시 공감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선율이 환생하기 직전 죽은 여인을 만나게 되고 여인은 선율에게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한다. 선율은 환생하자마자 죽은 여자의 소원부터 먼저 이루어준다. 상대의 간절함을 함께 느끼고 상대의 처지를 자신의 것으로 환원시키는 데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공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 서사에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들의 공감에 다시 공감하고, 이들이 힘을 합쳐 선율의 소원 성취를 도와준다. 결국 선율의 성취는 공감의 연이은 공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때 공감은 상대의 간절함을 나의 간절함으로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정서적 일치와 동정적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모두가 행복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감정적 전이의 양상은 <남백월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설화는 성불(成佛)의 조건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노힐부득이 먼저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의 안타까운 처지에 대한 감정적 공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밤이 새려 할 때 낭자는 夫得을 불러 말했다. “내가 불행히 마침 산고가 있으니 원컨대 스님께서는 짚자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夫得이 불쌍히 여겨 거절을 하지 못하고 은은히 촛불을 비치니 낭자는 이미 해산을 끝내고 목욕하기를 청한다. 부득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마음 속에 업혔으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보다 더해서 마지못하여 또 목욕통을 준비하여 낭자를 통 안에 앉히고 물을 데워 목욕을 시키니 이미 통 속 물에서 향기가 강하게 풍기면서 金液으로 변한다.<sup>17)</sup>

16) 일연, 『삼국유사』, 卷5 感通 第七.

17) 일연, 『삼국유사』, 卷3, 塔像 第四.

달달박박이 자신을 찾아온 여인을 이성적 판단에서 둘러보냈다면 노힐부득은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여인을 이해하고 도와주었다. 그래서 불도를 닦는 수도자이기 이전에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여인의 요구를 따랐던 것이다. 이야기에서 강조된 것은 상대에 대한 감정적 전이의 공감인 것이다.

이상으로 타인의 처지에 감정과 정서 차원의 공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 계율이나 사회적 의무보다는 위기나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 연민, 동정, 동일시의 감정적 공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서감염(emotional contagion)’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 2.2.2. 인지적 실천으로서의 공감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심리, 그들의 생각, 의도, 감정 등등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거나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이든 그러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지적이다. 호프만은 우리가 공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아와 타자의 구별화를 함축하는 인지적 과정과 더불어 상징적 연상의 기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sup>19)</sup> 『삼국유사』에서 이와 같은 인지적 측면의 공감이 나타나는 텍스트를 살펴보기로 하자.

<수로부인>의 경우 이러한 인지적 공감의 양상이 강하게 나타난 텍스트이다. 수로는 철쭉을 탐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체 모를 노인이 나타나 절벽 위의 꽃을 꺾어 수로에게 건넨다. 꽃을 가지기 전까지 노인은 수로에 비해 약자이자 타

18) 거울신경세포는 말 그대로 거울처럼 작용하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흉내내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거울신경세포는 감정을 전염시킨다. 우리가 목격한 감정을 우리 안에 흐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정과 어우러지게 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좇아가게 만든다. 이때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느낀다’. 마치 상대가 우리 몸을 빌려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상대의 감각, 움직임, 기분, 감정 등을 느낀다. Goleman은 사회적 능력이 거울신경세포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황다현, 「공감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14. 2, p. 22).

19) 김태훈, 「앞의 논문」, 2015. 3, p. 10.

자이지만 꽃을 꺾은 순간부터 노인은 수로보다 우위에 설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은 분명 자신과 수로의 위치를 냉정히 구분해 내고, 수로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약자였던 자신이 우위를 점하였다 하더라도 노인은 철쭉을 가지고 싶은 수로의 마음과 그것을 선뜻 받을 수 없는 수로의 처지를 찬찬히 헤아리고 이해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헌화가>로 풀어낸다. 이러한 성찰과 공감의 과정은 수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로 또한 아무리 철쭉을 원했다 할지라도 정체를 모를 노인의 마음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받아 주기에는 부담일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 문면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로 또한 이를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용인의 과정 역시 상대의 처지와 용기에 대한 이해, 즉 인지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수로부인>에 나오는 <헌화가> 텍스트는 노인과 수로의 상호 이해와 공감의 텍스트로 읽혀질 수 있다.

제32대 효소왕(孝昭王) 때에 득오(得烏; 혹은 득곡(得谷))가 10일이 넘도록 보이지 않음 → 득오가 부산성(富山城) 창직(倉直)으로 갔음을 그의 모친이 알려줌 → 죽지랑이 부산성에 찾아가서 술과 떡을 대접하고 익선에게 휴가를 청하였으나 익선은 반대하고 허락하지 않음 → 쌀 30석을 익선에게 주면서 득오에게 휴가를 주도록 함께 청했으나 그래도 허락하지 않음 → 진절(珍節) 사지(舍知)의 말안장을 주어 겨우 허락을 받음 → 조정의 화주(花主)가 이 말을 듣고 익선을 잡으려 하나 익선이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말아들을 잡아 벌춤 → 효소왕(孝昭王)이 그 말을 듣고 명령하여 모량리(牟梁里) 출신은 벼슬을 주지 않도록 함.<sup>20)</sup>

<모죽지랑가>의 배경설화이기도 한 <효소왕대 죽지랑>의 스토리이다. 여기서 득오는 죽지랑의 무리에 속해 있던 이로서 이들은 상하관계에 있다. 사건의 발단은 득오가 익선에 의해 부역을 가게 되었는데, 죽지랑은 부하를 위로하기 위해 부산성까지 찾아갔고 여러 차례 득오의 휴가를 익선에게 청한다. 그러나 익선은 여러 차례의 사례를 받고서야 득오의 휴가를 허한다. 이러한 사실을 조정에서 알고 익선

20) 일연, 『삼국유사』 卷2, 紀異 第二.

을 별하고 왕은 익선과 같은 고향 출신의 사람을 등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죽지랑이 득오를 찾아가 여러 차례 휴가를 청한 것은 자신의 부하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의지에서이다. 득오는 죽지랑이 거느리고 있는 화랑도의 무리 중 한 사람일 뿐이지만 죽지랑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 도움에 나선다. 여러 차례 거절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그의 의지는 바로 어려움에 처한 득오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그 공감은 근거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대의 아들이 만일 사사로운 일로 간 것이라면 찾아볼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공사(公事)로 갔다니 마땅히 가서 대접해야겠소.” 이에 딱한 그릇과 술 한 병을 가지고 좌인(左人; 우리말에 개질지(皆叱知)라는 것이니 이는 노복(奴僕)을 말한다.)을 거느리고 찾아가니 낭(郎)의 무리 137명도 위 의(威儀)를 갖추고 따라갔다.<sup>21)</sup>

그가 득오를 찾아간 것은 득오가 공사(工事)에 나가 고생을 하고 있음을 알고 득오와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상하관계에서 윗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공감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상반된 인물은 바로 익선인데, 익선은 조정과 왕으로부터 별을 받는다. 그 이유는 그가 뇌물을 받아서라기보다 아랫사람의 처지를 돌보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익선에 대한 징벌은 죽지랑의 인품을 더욱 부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윗사람으로서, 혹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을 강조하는 역할도 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이다. 이러한 공감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파악하거나 이해하기’에 해당하는 인지적 측면의 공감이다. 죽지랑은 윗사람의 아랫사람에 대한 이성적 차원의 공감을 실천한 인물로 당대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이상적 리더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모죽지랑가> 또한 죽지랑과 득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빚어지는 동정과 추앙의 차원이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이성적 실천으로서의 공감을 강조한 노래이며, 노래의 유포는

21) 일연, 『삼국유사』 卷2, 紀異 第二.

인지적 공감은 그 실천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신분 간의 인지적 실천으로서의 공감은 <이혜동진>의 지귀관련 설화<sup>22)</sup>에서도 잘 드러난다. 선덕여왕은 자신에게 연정을 품은 지귀에게 자신의 금팔찌를 하사한다. 선덕여왕이 지귀에게 금팔찌를 준 것은 지귀에 대한 감정적 공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감정적 공감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자신도 그대로 체험하는 것인데, 선덕여왕이 지귀에게 감정 이입되거나 동일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록 신분은 천하지만 지귀 또한 자신이 보살피어야 하는 백성이라는 이성적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선덕여왕의 금팔찌는 왕으로서 실천해야 하는 애민의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인지적 실천으로서의 공감이다. 그런데 금팔찌로 인해 지귀의 무모한 사랑은 화마(火魔)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급기야 신라 곳곳을 화재에 휩싸이게 하는 원흉이 된다. 그러자 선덕여왕은 지귀에게 베풀었던 공감을 거둔다. 그리고 지귀를 경계하는 글을 쓴다.

그것은 왕으로서 다른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실천으로서의 공감이 이타적 행위는 적극적으로 돕지만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과감히 공격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을 매개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sup>23)</sup>

이상으로 『삼국유사』 설화 중 인지적 실천으로서의 공감의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텍스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삼국유사』 설화에는 인지적 실천으로서의 공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지적 공감은 사회의 리더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죽지랑과 선덕여왕 모두 당대 사회의 리더로서 항상 아랫사람과 백성의 처지와 고통을 보살피며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감능력으로 인해 당대인들

22) 일연, 『삼국유사』 卷4, 義解 第五.

23) 김태훈, 앞의 논문, 2015. 3, p. 18.

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추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의 공감은 타자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이타적 행위이자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 공격할 수 있는 적극적 개념의 공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2.3. 탈동일시 과정으로서 공감

진정한 공감은 타인이 처한 고통에 대한 감정적 공유와 그것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거쳐 그 고통을 제거하려는 실천적 노력까지 나아갔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적 공감의 과정은 다시 자신의 특권에 대한 자각과 성찰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면 공감은 감상주의적 이해를 벗어나 자신의 외적 정체성으로 자아를 국한하지 않는 탈동일시의 과정을 모색할 수 있다.<sup>24)</sup> 다음에 제시된 <惠通降龍> 텍스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혜통(惠通)이 어느 날 집 동쪽 시내에서 놀다가 수달[獺] 한 마리를 잡아 죽이고 그 뼈를 동산 안에 버림 → 이튿날 새벽에 그 뼈가 없어졌으므로 찢자국을 따라 찾아감 → 뼈는 전에 살던 굴로 되돌아가서 새끼 다섯 마리를 안고 쭈그리고 있음 → 혜통이 바라보고 한참이나 놀라고 이상히 여겨 감탄하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속세를 버리고 중이 되어 이름을 혜통으로 바꿈.<sup>25)</sup>

이 설화는 혜통이 중이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숭고함마저 느끼게 하는 어미수달의 모성애는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살생의 참혹함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인간인 혜통과 동물인 수달의 위치를 전도시킨다. 당연히 인간은 동물보다 우위에 있고, 우위에 있으므로 살생은 인간의 특권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미수달의 충격적인 모성애는 대상에 대한 동정과 공감의 차원을 넘어 살생이 인간의 특권이 아니라는 자기반성의 기회를 마련한다. 이에 혜

24) 김미덕, 앞의 논문, 2013. 10, pp. 317~354.

‘탈동일시(disidentity)’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특징을 규정짓는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뜻으로서, 여기서는 타인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과감히 자신의 특권과 정체성을 해체하고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담은 개념이다.

25) 일연, 『삼국유사』 卷5, 神呪 第六.

통은 그동안 자신이 지녔던 특권을 해체하고 그동안의 자신으로부터 탈동일시를 시도한다. 속세를 버리고 중이 되었으며 이름까지 바꾸어버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타인의 고통과 처지에 대한 이해를 넘어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적 차원의 공감이다. 이 이야기가 불교 관련 설화이므로 이를 자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살생금지 계율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새끼를 안고 있는 어미수달의 뼈를 목격하는 순간 그것은 주체의 우위를 전제하는 자비의 차원을 넘어 주체와 타자가 역전하는 주체의 탈동일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상은 <처용랑 망해사> 설화를 해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 <처용랑 망해사>에서 공감의 양상은 신라왕과 처용의 만남, 처용과 역신의 만남에서 나타난다. 먼저 신라왕과 처용의 만남은 문화와 문화 간의 교류로서 토착세력과 이주세력의 만남이다. 여기서 신라왕은 바닷가에서 만난 이주 세력인 처용을 자신의 측근으로 데려와 중요한 임무를 맡긴다. 뿐만 아니라 신라 여인으로 배필을 맺어 주는 등 처용이 정착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이는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이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 그것을 없애 주려는 인지적 실천으로서의 공감이다. 이러한 공감의 실천으로 처용은 권력과 가정을 얻어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그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기에 그가 마주한 뜻밖의 사건은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처용은 오히려 춤을 추며 노래를 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한 다음의 논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준다.

처용은 역신이 자신의 아내를 범한 것을 알고도 물러선다. 이는 자기 성찰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음주가무하며 정사(政事)－혹은 辟邪災厄－를 돌보아야하는 본분을 망각한 죄는 아버지인 동해용왕도 용서하지 못할 죄에 해당한다. 자신도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하물며 역신이 미인을 탐하는 마음이야 오죽할까라는, 역지사지 마음이 타자를 이해하는 공감의 바탕을 형성하였다. 그런가하면 역신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준 처용에게 감동하여 그를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게 된다. 용서는 역신이 처용에게 굴복하는 이유가 된다. 결국 처용과 역신은 각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는 데서 공감한 것이다.<sup>26)</sup>

위의 논의를 참고하면, 처용은 역신과 아내의 동침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역신을 공격하기보다는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러한 성찰의 결과 역신이라는 타자의 처지를 이해하는 공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7)</sup> 그리고 역신이 처용에게 굴복한 것은 바로 이러한 처용의 자기 성찰적 태도 때문이다.

여기서 처용의 성찰은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특권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상대에 대한 공감과 타자이해의 바탕이 자기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처용의 ‘춤’과 노래는 겉으로는 비정상적 행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일련의 자기 성찰과 타인이해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을 비언어적 비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처용은 자기 자신과 역신과 아내를 분리와 갈등의 세계에서 상호 인정과 화합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탈동일시 과정으로서 공감은 타인이해에 선결조건으로 자기이해가 필요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타인이해가 반성적 자기이해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감정적 전이과정으로서의 공감과 인지적 실천으로서의 공감이 타자이해에 주력하고 있다면 탈동일시 과정으로서의 공감은 자기이해 및 탈동일시를 통한 자기점점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

26) 권오경, 「공감으로 읽는 신라노래」, 『<중간공동체론> 학술발표회자료집』, 동아대학교 중간공동체론 연구팀, 2014.

27) 그동안 처용설화가 역신을 물리치는 행위로 읽혀졌기 때문에, 역지사지라는 해석이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처용이 역신을 대하는 태도가 배타적, 공격적 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공감으로서의 해석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예기치 못했던 위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것을 포용하고 그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는 공감의 양상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 3. 공감을 통해 본 『삼국유사』 설화의 다문화교육적 의미

『삼국유사』에서 다문화를 읽어 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대체로 ‘이질적 존재 간의 만남’이라는 측면을 다문화와 연결하는 정도였다.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하되, 만남의 과정에서 읽어 내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 결과 ‘공감’의 키워드가 『삼국유사』 설화 곳곳에 숨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공감을 매개로 하여 『삼국유사』의 다문화교육적 의미를 도출해 보기로 한다.

다문화교육은 “하나의 국민 국가 공동체 내의 다양한 문화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서 그 문제점을 타인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자세를 스스로 찾으려는 교육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sup>28)</sup>

학습자의 다문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통과 고통의 가치를 공동체의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정을 ‘문화적 체험’을 통해 공유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체험의 양상이 어떤 텍스트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sup>29)</sup> 여기서 『삼국유사』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고, 이를 통해 『삼국유사』는 다문화교육의 차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지닐 수 있다.<sup>30)</sup> 그렇다면 『삼국유사』 설화의 다문화교육적 의미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도록 하자.

28) 서덕희 외, 「교양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강좌 개발에 관한 실행 연구」, 『교양교육연구』 7권5호, 2013. 10, p. 393.

29) 서덕희 외, 앞의 논문, p. 391.

30) 『삼국유사』 설화 및 신라인들이 지녔던 소통과 공감의 양상은 다문화시대에 『삼국유사』를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1. 공감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 강조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맞아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필요한 핵심적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덕목이라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이 그것의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공감’의 덕목 또한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러한 덕목은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 요소이므로, 다문화교육에서는 그것에 대한 실질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의 구체적 제시가 절실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국유사』 설화는 공감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삼국유사』 설화를 통해 공감의 구체성과 실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백월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원래 성불의 조건을 제시하는 설화이다. 성불은 두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고 이를 위해 두 사람은 수도 생활에 몰두한다. 그런데 설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불의 중요한 요건은 다름 아닌 타인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었다.

수도승에게 여자는 절대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이물적 존재이다. 그러나 <남백월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설화에서는 이물적 존재를 받아들인나 내치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를 받아들였다면 그의 처지와 고통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그 어떤 수련보다 중요한 시험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타인의 처지와 고통을 전유하고 그 고통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할 때 성불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남백월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에서 공감은 다른 방법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성불을 오히려 용이하도록 하는 요소임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불교의 계율을 지키며 열심히 수도생활을 했던 달달박박은 성불하지 못하고, 여인을 받아들이고 여인의 처지에 공감한 노힐부득은 먼저 성불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런데 『삼국유사』 설화가 더욱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특히 사회적·실천적 차원의 공감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

문화사회에서 공감의 동정이나 동일시보다 더 강조되는 이유는 그것이 감정입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의 공감자의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율환생> 설화가 보여준 공감의 힘과 사회적 파급력은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제재가 될 수 있다. <선율환생>에서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이 완성된 과정은 공감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명사(冥司)의 선율에 대한 공감, 선율의 죽은 여인에 대한 공감은 개인적 차원의 공감이지만, 이 개인적 차원의 공감은 더욱 확장되어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며, 이러한 사회적 공감의 힘은 선율의 <반야경> 완성에 직접적 원인이 된다.

이처럼 『삼국유사』 설화는 개인 간의 공감과 공감이 쌓이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급력을 발휘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바람을 쉽게 이룰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타자의 고통을 상호 대면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거칠 때만이 보다 발전적인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sup>31)</sup>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더욱 중요하다.

한편 『삼국유사』 설화에서는 공감의 사회적 파급력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당대 리더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공감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단적으로 확인된다. 리더가 중시되는 이유는 그것의 대사회적 역할 때문이다. 바로 공감의 사회적 실천력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공감이 상대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더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삼국유사』 설화는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죽지랑과 득오>, <선덕여왕과 지귀>, <가락국기> 등에서 각각의 리더는 공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여러 명의 부하 중 한 사람인 득오를 위해 거듭 도움을 요청하는 죽지랑, 하찮은 신분인 지귀에게 금팔찌를 선뜻 내어준 선덕, 타국인에 대한 적극적 수용과

31) 박상환 외, 「문화기억과 공감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74집, 한국동서철학회, 2014, p. 495.

극진한 존중을 실천한 김알지. 이들의 실천적 공감은 단순히 이들 개인의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 이들이 당대 사회의 중요한 리더였던 만큼 이들이 실천한 공감은 더 많은 공감의 실천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 공감을 강조한 것은 공감의 사회적 파급력을 증시한 결과라 생각된다.

이처럼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은 인지적·실천적 차원에서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 적극적 공감이다. 이러한 요소는 다문화교육에서 공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3.2. 반성적 자기이해와 상호공존의 강조

다문화사회에서 공감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감이 타자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처지와 입장 그리고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타자이해는 사회 화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타자이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에 대한 성찰과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타인이해가 단순한 동정의 차원으로 머물거나 순간적 감정입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공감이론에서 특히 경계하는 바이기도 하다.<sup>32)</sup>

이러한 차원에서 <처용랑 망해사>에서 확인한 처용의 행동과 <惠通降龍>에서 자신의 특권과 위치를 버리고 중이 된 혜통의 결단은 공감에서 지향하는 반성적 자기이해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惠通降龍>이 독자에게 깊은 공감을 주는 것은 혜통이 수달의 모성에 애충격과 연민을 가지는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타자의 고통에 직면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그 정체성에 바탕을 둔 모든 특권에 대해 반성하고 이로부터 탈동일시를 이루었다.

32) 공감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감정 그 자체뿐 아니라 타인이 그 감정을 느끼게 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타인의 태도도 같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공감은 일종의 판단(judgement)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우리가 공감한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의 타당성(propriety)에 수긍하고 동의함을 의미한다(민은경, 앞의 논문, 2008. 2, p. 74.).

이는 다문화사회에서 다수자를 대상을 한 교육에서 특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사실 그동안 다문화교육에서 늘 강조된 것은 ‘타자’였다. 이주민 혹은 소수자인 타자는 다수자와 주체의 사회 혹은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했으며 끊임없는 적응을 요구받았다. 이것이 다문화사회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건으로 인지되었기 때문이다. 다문화교육의 지향이 사회통합 혹은 동화의 방향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타자이해를 위해서는 자기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타자이해가 있는 후 이를 바탕으로 한 반성적 자기이해가 다시 필요하다고 본다. “공감은 타자를 자기화하고, 나 자신을 타자화하는 방법이다.”<sup>33)</sup>라는 말은 이러한 과정을 직접 대변하고 있다.

또한 이때의 자기이해는 기존의 정체성과 특권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려는 노력’으로서 영적 자아로의 변화이자, 특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내재된 윤리적 실천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때로는 불편한 자기인정으로 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타자와의 연대와 진정한 상호인정이 가능하며 공감의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교육에서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호 연계된 세계 시민교육의 방향<sup>34)</sup>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삼국유사』 설화는 현재 다문화교육이 처한 다양한 갈등과 불신의 문제, 감상주의적 태도에서 오는 온정주의의 문제, 그리고 주체 우월의 타자 인정의 문제 등등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 반성적 자기이해, 탈동일시의 시도, 이를 통한 상호공존의 실현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민족적·문화적 배타성을 완화하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및 편견 극복을 강조하는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텍스트로 『삼국유사』 설화가 새롭게 채택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33) 민은경, 앞의 논문, 2008. 2, p. 80.

34) 김옥순 외,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pp. 42~43.

#### 4. 결론

본고는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다문화교육적 측면에서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삼국유사』 설화 중에서 교류를 주된 스토리로 하는 텍스트를 선별하고, 텍스트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을 감정적 전이, 인지적 실천, 탈동일시의 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삼국유사』 설화는 공감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반성적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공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교육적 의미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 공감을 주목한 이유는 공감이 다문화사회의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감’은 상대에 대한 인정과 소통을 넘어서서 그를 통한 자기정체성 재정립에까지 나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이는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된다.

한편 『삼국유사』 설화 가운데 이러한 공감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로 서로 다른 신분 간의 교류와 교감을 다룬 <혜공이통(지귀설화)>, <수로부인>, <효소왕대 죽지랑>, 서로 다른 존재 간의 교류와 교감을 다룬 <고조선왕검조선>, <도화녀와 비형랑>, <남백월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惠通降龍>, <김현감호>, <선율환생>,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와 교감을 다룬 <처용랑 망해사>, <가락국기> 등을 주목하였다. 이들은 『삼국유사』 설화 전체를 살펴 대상을 선정하였지만 대체로 인지도가 높으면서, 대표성을 띠는 작품이다. 따라서 교육 텍스트로서의 가능성과 공감코드로 텍스트가 어떻게 새롭게 읽힐 수 있는가를 살피기에 적절하다.

이들 텍스트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은 크게 ‘정서적 전이과정으로서의 공감’, ‘인지적 실천으로서의 공감’, ‘탈동일시 과정으로서의 공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서적 전이과정으로서의 공감’이란 ‘정서적 일치와 동정적 반응’으로서의 공감을 의미하는데, <선율환생>과 <남백월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설화를 통해 그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사회적·종교적 계율이나 법칙보다는 상

대에 대한 정서적 공감의 의미를 강조했다. ‘인지적 실천과정으로서의 공감’이란 공감의 과정이 상대의 처지에 대한 이성적·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타인의 감정이나 처지를 개선시킬 사회적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수로부인>, <효소왕대 죽지랑>, <지귀설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탈동일시 과정으로서의 공감’이란 타인이해의 전제 혹은 반성적 지향으로서 타인의 고통이 어디에서 연유하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이 자신의 특권이나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여기에서 탈피함으로써 진정한 자기이해와 타인이해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惠通降龍>과 <처용랑 망해사>를 중심으로 이를 설명하였다.

『삼국유사』 설화는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감’의 다층적 양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감의 실현 가능성을 텍스트를 통해 직접 보여주고 있으며, 공감의 사회적·실천적 파급력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반성적 자기이해와 상호공존의 강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다문화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문화사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문학연구 및 교육에서 텍스트에 나타난 다문화적 특성과 상징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노력과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의 핵심가치 및 역량으로서 ‘공감’을 주목하고 그것의 분별적 양상을 텍스트를 통해 읽어내었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설화 텍스트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이들 설화의 의의를 현재 다문화교육이 처한 문제점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는 점<sup>35)</sup>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 설화 텍스트를 활용한 공감교육의 실제적 모

35) 그동안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동화의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선주민,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대상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동화의 차원이 아닌 상호 ‘공감’의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문화의 대표적 상징으로 읽혀 온 『삼국유사』를 ‘공감’ 키워드를 통해 재해석하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지향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하나의 작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형과 교수·학습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후고를 기억한다.

주제어 : 삼국유사, 공감, 공감교육, 설화, 교류, 다문화, 다문화교육, 타인 이해, 자기이해, 신라 설화, 이물교혼.

### 참고 문헌

- 김옥순 외,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pp. 42~43.
- 박상환 외, 「문화기억과 공감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74집, 한국동서철학회, 2014, pp. 473~499.
- 권오경, 「공감으로 읽는 신라노래」, 『<중간공동체론> 학술발표회자료집』, 동아대학교 중간공동체론 연구발표회, 2014.
- 김미덕, 「공감·정체성·탈동일시」, 『사회와철학』 26집, 사회와철학연구회논문집, 2013. 10, pp. 317~354.
- 김태훈, 「공감(empathy)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47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5. 2, pp. 1~28.
- 민은경, 「타인의 고통과 공감의 원리」, 『철학사상』 27집,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08. 2, pp. 67~90.
- 박진태, 「『삼국유사』의 설화를 통해 본 <토착-외래>의 관계 유형」, 『국어교육』 34집, 2011, pp. 243~265.
- 서덕희 외, 「교양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강좌 개발에 관한 실행 연구」, 『교양교육연구』 7권5호, 2013. 10, pp. 377~431.
- 안득용, 「박지원 산문에 나타난 공감의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4, pp. 241~270.
- 양민정, 「다문화교육 관점의 여성설화의 서사적 전통 연구」, 『외국문학연구』 57호, 한국외대, 2015. 2, pp. 247~271.
- 이기원, 「『맹자』와 관용-소통과 동락을 통한 공감과 치유-」, 『동방학』 31집, 한서대동양고전연구소, pp. 111~144.
- 이강욱, 「신라 설화에서의 존재 간 소통 양상과 의미」, 『어문논총』 5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12, pp. 227~256.

- 이명현 외, 「다문화시대 이물교혼담의 수용 방향과 전래동화 창작 사례 연구-〈여우색시〉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1집, 중앙어문학회, 2012. 9, pp. 275~298.
- 이명현, 「다문화시대 이물교혼담의 해석과 스토리텔링의 방향」, 『우리문학연구』 33집, 우리문학회, 2011. 6, pp. 143~170.
- 이명현, 「다문화시대 인물 탄생형 이물교혼담의 가치와 동화 스토리텔링의 방향」, 『어문논집』 55집, 중앙어문학회, 2009, pp. 173~194.
- 임재해, 「『골계전』설화의 다문화읽기와 다문화사회 만들기」, 『구비문학연구』 2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pp. 29~74.
- 정우락, 『삼국유사 원시와 문명 사이』, 역락, 2012, pp. 1~183.
- 정재림, 「공감의 상상력과 문학교육」, 『어문논집』 69집, 민족어문학회, 2013, pp. 85~111.
- 최혜진, 「다문화 시대의 설화교육시론」, 『문학교육학』 26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pp. 255~277.
- 표정옥, 「『삼국유사』 스토리텔링의 문화콘텐츠 생성 욕망과 신화적 독서의 생산성 연구-서정주의 〈삼국유사〉 해석의 시정신을 중심으로-」, 『동방학』 27집, 한서대동양고전연구소, 2013, pp. 7~38.
- 표정옥, 「신화적 상상력을 활용한 경계를 넘는 독서토론과 융합적 글쓰기 연구-〈삼국유사: 기이편〉에 기술된 다문화 상상력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21호, 시학과 언어학회, 2011. 8, pp. 249~272.
- 황다현, 「공감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14. 2. pp. 1~120.

·논문 투고 : 2015년 4월 30일

·논문 심사 : 2015년 5월 11일~6월 18일

·게재 결정 : 2015년 6월 19일

#### ■ 최은숙

소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조교수

전자우편 : ces7007@bufs.ac.kr

## The ‘Empathy’ Aspects and Multicultural Educational Meanings of Narrative in “Samgukyusa”

Choi, Eun – 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Empathy’ aspects and multi-cultural educational meanings of the narrative in “Samgukyusa”.

First, I selected texts that contain the exchanges between people and people, people and animals, and culture and culture.

Second, I attempted to analyze the emotional aspects, found the assimilation of emotions, social actions, and an attempt of dis-identity shown in the texts.

Third, I attempted to examine closely the multi-cultural educational meanings of the narrative of “Samgukyusa”. The narrative of “Samgukyusa” shows us the important aspects of a multi-cultural society and contains the feasibility, social impact, and self-reflection of the empathy. So it can give us important implications o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Forward, Methods of empathy education by utilizing the narrative of “Samgukyusa” must to be discussed. That will be my next work.

Keywords : “Samgukyusa(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empathy, muticulture, multicultural education

---

\* Professor, Division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